

산림포토뉴스



●● 제62회 식목일 나무심기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은 5일 62회 식목일을 맞아 서울 성북동 북악산 기슭에서 산림공무원과 임업인, 학생, 지역 주민 250여 명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수명이 다해 쇠퇴해가는 아까시 나무를 제거하고 2천여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



●● 62주년 식목일 맞아 산림사업유공자 포상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제62주년 식목일을 맞아 3일 산림자원조성과 산림소득증대 등 임업발전에 공이 많은 임업인 10명에게 산림사업유공자 포상을 시행했다.



올해 산림사업 유공자로는 동탑산업훈장에 김태원씨, 철탑산업훈장에 이춘만씨, 산업포장에 박호진, 이정무씨, 그리고 대통령표창에 최두한씨 외 5명 등 총 10명이 선발돼 영예로운 포상을 받았다.





●● 잣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독려

서승진 산림청장은 30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잣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제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 산림청-FAO간 '산림경영(SFM)사업참여 MOU' 체결

산림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FAO(세계식량농업기구)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측정, 평가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산림청-FAO간 'SFM사업참여 MOU' 체결로 산림청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 달러씩 기여 총 80만 달러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제공한다.

이수화 산림청 차장과 FAO의 Tesfai Teclé 사무총장보가 서명한 이번 양해각서는 산림분야 국제현안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이행을 위한 아시아 지역단위의 국제협력프로그램 개발이행에 있어 FAO로부터 한국 정부의 참여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사업 참여 기대 효과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SFM 지표(C&I)를 한국의 국내정책에 적용, 이행하기 위한 경험과 기술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 동해안 대형산불방지센터 현판식

산림청은 3월 2일 경북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 서승진 산림청장, 김용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대형 산불방지센터 개소에 따른 현판식을 가졌다.

또한 박홍수 농림부장관 주재로 대형산불 발생시 산불관계기관(산림, 소방, 경찰, 군, 민간단체)별 업무분담 및 대처방안을 마련, 금년 봄 동해안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특별대책 회의도 개최했다.

동해안 대형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헬기23대 대기시키고 감시원1,178명, 무인감시카메라11대, 감시탑66개소, 감시초소18개

소를 설치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등산로37개소148km, 입산통제구역216개소123천ha에 대하여 입산통제 실시와 쓰레기장 등 취약지 805개소에 대하여는 집중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국민 1인당 1그루씩

산림청은 봄철 나무심기기간(3.1~4.30)을 맞아 '국민 1인당 1그루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한다. 2월27일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서 올해 첫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은 동백나무와 후백나무 등 난대수종 1000그루를 식재했다. 산림청은 이 기간 중 2만ha에 약 4300만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145개소, 285ha 부지에 '내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